

## 신령한 은사(선물)

로마서 12:6-13 (찬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 ■ 말씀과 나눔

제각각의 악기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듯이,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닌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의 아름다운 원리인 셈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그리스도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1. (관찰) 바울은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느 공간에 있다고 말합니까? 또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5a: 우리 많은 사람이 ( )에서

5b: ( )이 되어 서로 ( )가 되었느니라.

2. (관찰) 구원받은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몸 은유'는 결국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6a: 우리에게 주신 ( )대로 받은 ( )가 각각 다르니

\*원문에서, 은혜는 '카리스'이고 은사(들)는 '카리스마(타)'입니다. '카리스마(타)'에 이미 '은혜'라는 의미가 담겨있지만 바울은 '카리스'대로 받은 '카리스마타'라며 '은혜'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나눔1) 6b-8절을 먼저 다같이 읽어봅시다.

초대교회에서는 7-8절과 같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은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 중 어떤 부분을 세우길 원하십니까?

자신의 장점, 장기, 좋아하는 것 등을 나눈 뒤, 새해에는 그것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지 이야기해 봅시다.

바울은 6b-8절에서 은사의 종류에 대해 열거하였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는 그러한 은사로 공동체에서 섬길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4. (관찰) 바울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9: ( )에는 거짓이 없나니...

10: 형제를 ( )하여...

5. (관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9: 사랑에는 ( )이 없나니 ( )을 미워하고 ( )에 속하라

10: 형제를 사랑하여 ( )하고 ( )하기를 ( )하며...

6. (나눔2) 거저 받은(은혜로 받은) 은사를 사용하면서 다른 한쪽 마음으로 우월감이나 경쟁심을 가지

는 것은 '악'에 속한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랑이 '선'이며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10절에서 말하듯, '친절하고 따뜻한 가족적인 애정(우애)'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서로'가 '먼저'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것이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하느냐'입니다. 공동체를 섬기고 지체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어떠한지 살펴봅시다.

나 자신의 잘못된 태도로 상처 받은 사람은 없었는지, 혹은 공동체와 지체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은 적은 없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 ■ 함께 읽읍시다.

강신주는 그의 책 '감정수업'에서, [사랑의 감정에 빠지면 우리는 상대방이 욕망하는 것을 나도 욕망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여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묘한 경쟁심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니라 '사람의 인정'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멀리 돌아가지 말고, 서로를 향해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존중 받고 싶어요'라며 인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